

‘이제 임실’ 홍보영상 SNS 인기 일본 교토상가FC 유스팀, 임실 찾아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통해 관광지·사계절 축제 소개... 조회수 12만회 돌파

임실군청 공식 SNS 채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홍보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예상 외 뛰어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임실 방문의 해 '이제 임실' 홍보영상 조회수는 31일 현재 12만 4,006회를 돌파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제작한 홍보영상에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외견 관광지, 왕의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관촌 사선대 등 임실군 주요 관광지와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N페스타, 임실N 치즈축제와 산터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댓글에는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임실!', '올해 꼭 가봐야겠어요', '내 고향 임실 최고' 등 응원의 댓글이 속속 올라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임실 방문의 해 '이제 임실' 홍보영상 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있다.

군은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며,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 5일과 6일 개최되는

옥정호 벚꽃축제에서 '임실 방문의 해'를 기념해 특별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톨렛 이벤트와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숙박비 할인 지원, 인플루언서 초청 캠퍼, 도내 대학생 임실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혜택으로 방문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다양한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방문의 해 전북현대 초청... 관광·체험 등 즐겨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생산지인 임실군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지난달 28일 임실군을 찾은 일본 J리그의 명문구단인 교토상가FC 유스팀 소속 선수들은 임실관광 투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들 선수단이 임실군을 방문한 건 25일부터 29까지 있을 전북현대포터스 FC 유스팀 등과 친선전을 치르고, 친선전이 없는 날에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임실군을 찾아 관광을 즐겼다.

교토상가 유스팀원들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를 알고, 특히 치즈수도인 임실군에서의 특별한 추억만들기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선수들은 임실군의 협조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치즈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치즈 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알차게 준비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계절 장미원, 농촌테마공원 등을 둘러보며 축구 경기에 대한 긴장과 여독을 풀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왕의 숲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유스팀의 지인 및 가족이 향후 한국 관광 시에 임실을 들를 수 있도록 임실의 우수한 관광지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교토상가FC 유스팀 관계자는 "임실군의 따뜻한 환대에 크게 감사드립니다"며 "치즈체험도 재미있고, 한국 속의 임실이라는 지역을 알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대한민국 치즈수도 임실을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임실 방문의 해에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촌공간 정비 본격 추진

아영면 울동지구 50억원 투입

남원시는 아영면 울동지구에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영면 울동지구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했다.

첫 번째 단계로, 농촌지역 정비대상 시설인 축사 5동(10동)에 대한 매입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소유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철거를 완료, 이 과정은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 기초 작업으로 정비된 공간은 이후 다양한 발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분야로, 첫 번째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5개소를 건설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남원시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존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마

을 안길 정비, 마을 숲 및 마을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진행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기존 주민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농업인 지원

남원시가 주력산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건수 상위 30위 기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임대료 조정을 시행, 인상액이 큰 일부 기종(과수 농기계)의 경우 단계적 조정 협의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논 타작물(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콩 파종기, 콩 탈곡기 등 4종 2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실무, 읍면별 교육, 귀농인 대상 교육을 연 4회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농업용 드론 및 소형 특수 농기계 또한 면허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슬로건 공모전 개최

순창군이 '장 담그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순창장류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천년 전통의 발효, 이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순창장류축제의 특별한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오는 4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순창장류축제의 역사성과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 축제의 즐

거움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20자 이내의 슬로건으로, 참가 희망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순창장류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심사를 통해 총 5편이 선정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등

'내나라 여행박람회' 서순창 관광자원 적극 홍보

순창군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여행을 PLAY, 지역을 REPLAY'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특색이 담긴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한편, 순창 전통 발효식품과 건강한 먹거리 등도 함께 선보여 '건강한 여행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군은 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체험형 홍보에 나섰으며, 그 중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 만들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선정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및 병원 선정 체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란 119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환자 초기 상태 평가 후 5단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증상에 맞는 범주를 선택한 뒤 의료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어, 응급실 과밀화 등으로 인한 수용 거부를 예방하고 골든타임 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승현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 및 병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판단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응급 이송 체계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